

지역 소식

**충북 보은군 보은읍연합회, 공동 토양개량제 살포작업  
지역주민들 호응높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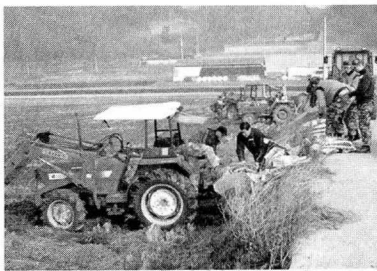
보은읍연합회(회장 구희선)는 회원들과 함께 학림 들에서 토양개량제 살포작업을 대행해 농업인들로 부터 호응을 얻었다.

보은읍연합회 30여명의 회원들은 포기가 부착된 트랙터 11여대와 농업용 1톤 트럭 10대를 가지고 학림 들에 나와 마을마다 배부된 토양개량용 규산질 비료 347.8톤을 336ha에 공동 살포했다.

규산질 비료의 공동살포 작업을 주관한 보은읍 구희선 회장은 "개별농가 단위로 토양개량제를 살포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 회원들이 내일같이

나와서 살포해주니까 연세 높으신 어르신들이나 여자 혼자 농사를 짓는 농가에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돼 농업인들이 좋아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경기 파주시 광탄면연합회 '토양개량제' 살포  
이장단 등 민 관 군이 하나되어 광탄면 11개리에 살포**



광탄면연합회(회장 최경수)가 주체로 지난 9일 민관군 약 80여명이 참여해 토양개량제 약 3만포를 관내 11개리에 살포해주며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광탄면은 이번 행사를 통해 파주시가 추진하는 '친환경농업 정착의 해'를 맞아 도시소비자 중심의 맞춤형 친환경 안전농산물을 생산한다는 농업경영인의 단합된 마음을 보여줬다.

특히 광탄면연합회 회원들은 "이날 활동은 농가인구 가운데 65세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30%에 달해 토양개량제를 공급받은 후 살포하지 않은 채 논밭에 방치하는 사례가 간혹 있어 이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고 말했다.

**포천시연합회, 농업경영인출신 조합장 농업 현안 간담회 개최**

포천시연합회(회장 최병문)는 지난 20일 포천축협에서 전현직 임원과 농업경영인 출신 농·축협조합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농협 연합마케팅사업 성공추진과 축협의 육가공사업 활성화 등 지역농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합과 농업경영인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결의했다

### 한농연 경기도연합회, 한미FTA 바로알기 범도민 캠페인 전개



경기도연합회(회장 강우현)는 지난 20~24일까지 5일동안 경기도내 전역을 순회하며 '한·미FTA 바로알기 범도민 캠페인'을 전개했다. 도내 31개 시·군을 4개 권역으로 나눠 실시한 이번 캠페인은 시민들에게 한·미FTA에 대한 부당성을 인식시키고 농업·농촌의 절박한 상황을 전달하기 위해 역사와 터미널, 시장, 백화점 등 다중집합장소에서 대대적으로 전개됐다. 강우현 회장은 "퍼주기식 협상으로 진행되는 한·미FTA를 경기도민들이 현명하게 판단해 농업인과 함께 막아내자"고 역설했다.

### 영동군연합회 가족 화합대회 성황



23회 영동군연합회 회원 및 가족 화합대회가 25일 영동 용화초등학교에서 운동장에서 열렸다. 이날 대회에는 농업경영인 가족 1천여명이 참석해 배구, 합동 줄넘기, 공튀기기 등 다양한 경기를 가지며 우의를 다졌다. 또 우수회원으로 송병연씨(심천면 심천리) 등 4명이 군수 표창을, 안진우씨(영동읍 산익리) 등 12명이 대회장 표창을 받았다.

이 밖에 유공회원으로 배경석씨(매곡면 어촌리) 등 4명이 중앙도회장 표창을 받았으며 우수회원 자녀 10명에게 장학금도 전달됐다.

### 한농연 경남도연합회, 농업경영인 위탁교육 개최

#### 지역농정대안의 주체로 도약

경남도연합회(회장 이현호)가 2007년 경상남도 농업경영인 위탁교육을 개최하며 산하 농업정책연구소를 중심으로 지역농정 대안제시의 주체로 나설 것을 다짐했다.

지난 21일 농협창녕연수원에서 열린 이번 교육에는 박의규 한농연중앙연합회장, 김중부 경남도 농수산국장, 이재관 농협경남지역본부장 등의 내빈과 회원 2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경남도연합회 이현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 농림부장관과 한농연중앙연합회장을 배출한 경남농업경영인의 저력을 다시 결집시켜 한·미FTA를 저지시키는 한편, 지역농업 활성화 정책과 대안 제시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이에 도연합회 산하에 (가칭)경남농업정책연구소를 발족키로 했다"고 밝혔다.

### 전남 광양시 광양읍연합회 ‘아름다운 노동’ 불우 이웃돕기 위해 휴경지 1만여평 일귀



광양읍연합회(회장 이정재)가 휴경지를 빌려 자신들이 직접 일귀 가을에 쌀을 생산해 불우이웃을 돕는 보람있는 일을 해 지역에서 화제다. 이 회장을 비롯한 55명의 회원들은 ‘광양농업경영인회 2007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세풍들 휴경지를 경작해 불우이웃돕기에 나섰다.

논 소유자들은 예상밖에 좋은 일에 쓰다는 것에 모두 동의해 줘 그렇게 시작된 이날 휴경지 논갈이는 ‘가을 추수 때 벼를 생산키 위한 보람의 구슬땀을 흘리는 현장이었다. 이 회장은 “휴경지 1만여 평에 벼를 재배하면 쌀 400포대의 수확이 예상되는데 이를 팔

면 2천만원의 수익이 발생하며 이 기금으로 어려운 회원 가정과 관내 소년소녀가장 등 불우이웃을 돕는데 전액 쓸것”이라며 자신들의 선행을 자랑스러워했다.

### 제주농협본부-한농연제주도연합회 제주농업과 농정현안에 대한 간담회

제주농협과 한농연제주가 최근 간담회를 갖고 제주농업 발전을 위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는 동시에 농정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본부장 현홍대)와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회장 고영천)가 제주농협본부 회의실에서 농협임직원 및 한농연제주 임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농업과 농정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갖고 제주농업의 과제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등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제주농업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제주농협과 한농연제주의 간담회를 통해 농협과 한농연의 역할을 새롭게 점검한다.

이날 고영천 제주특별자치도 회장은 “농촌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후계농업 인력육성은 그만큼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지원이나 육성책이 미약한 실정”이라며 “정부의 농업정책과 맞물려 시행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농협차원에서 후계농업 인력육성을 위해 연구노력하고 적극 투자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주문했다.

이밖에도 참석자들은 후계농업경영자금지원에 따른 신용보증문제와 지역농협의 각종 정보공개, 농협직원 친절도, 한라봉 산지경매, 대형마트의 횡포, 사료 및 축산폐수, 1사1촌사업 등 다양한 질의가 이어졌다.

### 영암군연합회 제22회 전진대회 ‘개혁과 변화속에 행동하는 연합회’

영암군연합회(회장 제22회 전진대회가 영암 실내체육관에서 개최 되었다. 이날 각계 각층의 많은 분들이 참석 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었으며 ‘개혁과 변화속에 행동하는 연합회’를 모토로 회원 가족들간의 즐거운 친목도모의 장이 마련되었다.

## 한농연 전북도연합회 특별영농교육 “조합원 참여로 농협개혁”

한농연전북도연합회(회장 김선태)는 16일 2007년도 제2차 특별영농교육토론회(협동조합교육)를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소재 전북농업인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한농연중앙연합회 손재범 정책조정실장은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동조합과 조합원의 역할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조합사업이 변화하기 위해선 경제사업은 적자사업이라는 인식을 탈피하고 조합사업으로 농민의 권익을 보호함은 물론 조합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한농연출신의 신명철 군산 대야농협장, 김창수 전주지체완주축협장, 정세환 익산 삼기농협장, 방금원 남원 원예농협장 등이 패널로 참석, 단일품종 신동진쌀 100% 수매, 믿음진 한우판매, 익산날씬이고구마 등 조합의 경제사업활성화에 대한 성공 사례 등을 설명했다.

## 제22회 장수군 농업경영인 가족체육대회

장수군연합회(회장 김남수)는 ‘우수농산물을 생산하여 수입개방 파고를 극복하자’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제22회 농업경영인 장수군 연합회 가족체육대회 및 농업발전 다짐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3일 오전 10시 30분 장수농개사당 야외무대에서 열린 가족체육대회에는 장재영 군수, 김흥기 의회의장, 장영수 도의원을 비롯 회원 및 가족 등 400여 명이 참가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이날 가족체육대회는 FTA, WTO 등 농축산물 수입개방에 맞서 지역농업활성화를 통해 농업·농촌을 지키고 농업인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등 농가소득증대를 꾀하기 위함이라는 것,

이날 김남수 연합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외국농산물과의 무한경쟁에서 살길은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인만큼 “잘사는 농촌, 살기 좋은 장수를 만드는데 혁신리더인 농업경영인 연합회가 앞장서자”고 역설했다.

이어 회원과 가족들은 고리걸기, 공차넣기, 단체줄넘기, 노래자랑 등 다채로운 체육 및 문화행사를 통해 상호 화합과 친목을 다지며 모처럼의 즐거운 하루를 만끽했다.

## 한농연 경기도연합회 한미 FTA 바로알기 캠페인 전개 비가 오는 곳은 날씨에도 아랑곳없이 FTA 실상 알려내

경기도연합회(회장 강우현)는 지난 3월 20일 고양시,포천시,의정부시에서의 『한미 FTA 바로알기 캠페인』에 이어 22일 남양주시,양평군의 주요 거점에서의 홍보활동을 진행한 바 있으며, 24일 비가 오는 곳은 날씨속에서도 변함 없이 한미 FTA 허상을 한명의 시민들이라도 더 만나서 알리겠다는 의지 속에서 전개되었다.

이에 지나가는 시민들을 발걸음을 멈추고 피켓과 전단 등을 유심히 살펴보면, 그간 잘 알지 못했던 한미 FTA의 허상에 주목하게 되었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서명운동 전개시 지역 상인들 및 행인들의 참여가 높아 더욱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한편 경기도연합회 강우현 회장은 “이번 일주일 내내 시민들을 만나며, 한미 FTA의 허상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였다”고 평가한 후 “앞으로 모든 역량을 동원하며 정부의 일방적 밀어부치기식 한미 FTA 저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